

전남도 '미래 수종' 육성...이상기후 산림재난 대응 나선다

전남도산림연구원, 미래 수종 발굴 간담회에서 밀원 수종 확대 논의, 전체 면적의 56%가 산림...산불에 강한 활엽수종 식재 필요

전남도가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병해충 증가에 맞설 수 있는 산림 조성에 착수했다.

전남지역 기후 특성에 적합한 난대성 수목과 꿀벌의 수분 매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밀원(蜜源)수종을 확대해 산림을 기후위기로부터 보존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이달 초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용 목목 대행 생산자, 육종 전문가 등과 함께 '미래 수종 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신규 조립 수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최근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른바 '극한 기후'가 불리는 산림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2010년대 연간 평균 857ha 수준이었던 전국 산불피해 면적은, 2020년대 들어 연간 8369ha 수준으로 10배 가량 늘었다.

올해 초 발생한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피해 면적만 하더라도 10만4000ha로 전남 산림 또한 극한 기후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도내 면적의 56%를 차지하는 산림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지난 1973년부터 조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 조립수종은 편백, 리기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 3개 수종이 과반이어서 다양성이 떨어진다.

최근 5년 조립수종도 편백, 황칠, 목백합 등 특정수종에 편중돼 있다.

무엇보다 편백과 리기다, 리기테다 모두 침엽수로 기후변화에는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침엽수는 활엽수에 견줘 산불을 잘 견디지 못하고 병해충(소나무재선충)에도 약하다.

이에 따라 내화(耐火)수종 식재 필요성이 커지

고 있다. 미래 수종 발굴 간담회에서는 동백, 굴참, 굴거리 나무 등 내화수종이 침엽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종으로 제시됐다. 동백나무 등은 산불에 강하고 연소확산이 느린 활엽수종이다.

전남 산림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품종으로는 황칠, 비자, 붉가시, 구실잣밤이 제시됐다. 이들은 난대수종으로 전남도의 기후특성(난대)에 적합한 품종으로 분류된다.

또 전남도산림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이 해남에서 수행 중인 '남부권 밀원단지 조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활착률이 높은 나무들에도 대체 품종으로 주목됐다.

산림연구원 연구 결과 철자화(93%), 아까시(91%), 헛개(72%), 쉬나무(65%) 등이 높은 활착률을 보였다.

밀원수종 확대 필요성도 크다. 밀원수종은 꿀벌의 먹이원으로 활용되는 나무다. 최근 전남도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꿀벌이 감소하고 있다. 꿀벌은 먹이활동을 하면서 꽃가루를 옮겨 식물이 열매를 맺도록 돕는 수분 매개 곤충이다. 전남도는 밀원수종을 확대해 꿀벌 개체수를 늘림으로써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종별 생육 특성과 조립 시기 등을 반영하여 묘령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일부 품종의 조립 후 초기 활착률 저하와 뿌리 생장 지연 등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규격 개편도 언급됐다.

전남도는 "기후변화와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갖는 유망수종 발굴이 필요하다"며 "밀원·난대수종은 시범 조립 조성 효과 검증 등 단계적 확대 방식으로 도내 산림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광원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1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산업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환 제2차 민·관 업무협약을 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탄소중립 실천...광주시, 2026년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 1700t 확대

2차 민·관 협약 체결...1차서 117t 재활용 탄소배출량 397t 줄여

광주시가 지역 대표기업과 2026년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1700t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제2차 산업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환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지역 대표기업들이 협약했다.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삼성전자, 세방리튬배터리, LG이노텍, 광주글로벌모터스 등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기업에서 매립·소각되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2026년까지 소각·매립 처

리는 폐플라스틱 총 500t을 물질·화학적·열적 재활용한다.

광주시는 협약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활용 가능 업체 발굴·연결, 폐기물 분야 민·관 네트워크 구축, ESG 실천 캠페인 등 협약기업에 대한 행정·기술적 지원하게 된다.

기업들은 재활용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생활용품으로 재생하고,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원료로 제조한다. 열적 재활용을 통해 시멘트, 제지공장에 화력유지용으로 재사용하게 된다.

광주시는 목표치를 달성하면 탄소배출량 5770t

, CO₂ 저감, 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2000만원 절감, 재활용 산업 매출 3억9000만원 증대, 원자재 구입 절감 26억원 등 약 3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지역 대표기업 4곳(기아오로렌드광주, 금호타이어, 오비맥주, 세방전지)과 '제1차 산업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환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행정기관이 발굴한 재활용 업체와 함께 폐플라스틱 117t을 재활용했다. 이는 탄소배출 397t CO₂를 줄이고 2억1000여만원의 경제적 창출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오비맥주는 열적 재활용 처리하던 맥아 포장재를 물질 재활용으로 전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입장권 사전예매 하세요"

오늘부터 8월 8일까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사전예매가 22일부터 시작된다.

21일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되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9월5일부터 12일까지)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9월22일부터 28일까지) 입장권 사전 판매가 22일부터 진행된다.

입장권은 종일권, 오전권, 오후권 등으로 운영된다. 결승경기 기준 본판매가 종일권 2만원, 오전권 1만원, 오후권 1만 6000원이며, 사전판매 기간(8월 8일까지)에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본 판매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3일 까지다.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전석 무료로 예매를 해야 한다. 두 대회 모두 관람객 편의를 위해 모

바일 기반 전자입장권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전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과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2025 광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평화의 울림"이라는 슬로건 아래 친환경 경기로 진행된다.

각국 선수들은 결승전에서 총 10개 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룬다. 단체·혼성 컴파운드(남·여) 결승전은 9월 7일부터 시작된다. 8일에는 개인 컴파운드 여자 결승전, 9일에는 개인 컴파운드 남자 결승전이 열린다. 10일에는 단체와 혼성 리커브(남·여) 결승이 진행되고, 11일에는 개인 리커브 남자 결승전이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개인 리커브 여자 결승전이 대미를 장식한다.

장애인 관람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요 관람 구역 전면엔 휠체어석이 별도로 마련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영록 지사, 호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나흘간 4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리면서 도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과 나주 등 피해 중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피해 중심지역에 대한 빠른 피해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집계한 20일 정오까지 도내 피해액은 337억원으로, 추후 피해 집계가 이뤄지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액 기준은 102억5000만원으로, 호우 피해가 큰 담양군과 나주시의 경우 기준 피해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방평가 라운지

"고흥·완도 김 산업 진흥지역 제외 납득 어려워"

송형곤 전남도의원 지적



적 노력에 응답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속가능한'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나해 말 62만원이었던 위판가격이 올해 1월 8만 원대로 폭락했고, 일부 어민은 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는 무면허 양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량 증가에 비해 가공공장과 저장시설이 제자리인 구조적 불균형 탓"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 이어 "단속과 행정명령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고품질화 및 국제 표준 대응체계 구축, 김 산업 품질 등급제 도입 및 브랜드화, 계약재배 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의회가 고흥, 완도군이 정부의 '김 산업 진흥지역'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송형곤(민주·고흥1)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은 김 수출 1위 지역이며, 특히 고흥과 완도는 도 전체 생산량의 47%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생산지이지만, 두 지역이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 양식 등을 이유로 배제했다는 설명은 행정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고흥 어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법 양식 개선을 위해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고, '까베기'로 불리는 친환경 부유식 양식 방식을 도입해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어민들의 자구



참고 매매·임대

대지 920평

건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